



G.K. 체스터턴 / 홍병룡 /  
아바서원

오늘날 신앙의 정통을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참된 생명력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기독교가 진리임을 확신하지 못할 때 이러한 모순에 빠진다. 체스터턴은 현대 사조와 자유사상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현대 사조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대안은 바로 기독교이다. 현대 사조의 맹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왜 기독교가 진리인지를 분명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이성의 위험 그리고 진리

체스터턴은 과도하게 이성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머리로 세상의 모든 이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한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다가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물론이다. 그리고 진화론은 역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게 만든다. 모든 것은 흐름 속에 있고 존재란 없다. 존재할 수 없기에 생각할 수 없다.

그에 반해 삶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삶이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창조주를 생각할 수 있다. 체스터턴은 세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서 세상을 개혁하고 싶었다. 체스터턴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요 세계를 그 자신에게서 분리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경험을 했다.

###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첫째, 자유사상의 위험을 알기 위해 읽어야 한다. 자유사상은 자유에 대해 말하지만 실제로는 속박을 강화한다. 그리고 고립된 상황에서 이성을 과도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그것들을 자유롭게 해 주셨다. 참된 자유의 열쇠는 하나님의 창조이다.

둘째, 기독교가 진리임을 확신하기 위해 읽어야 한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 피 흘림을 감당하신 하나님이다. 체스터턴은 유일한 용기는 영혼이 한 계점을 지나고도 부서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용기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진리임을 확신하게 된다.

셋째, 바른 세계관을 갖기 위해 읽어야 한다. 체스터턴은 원죄 교리를 중요하게 다룬다. 왜냐하면 원죄 교리를 통해 왕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거지를 불쌍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사람들은 재물, 권력, 아름다운 외모를 “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원죄를 가졌기에 타락할 수 있다. 원죄 교리를 통해 자신을 신뢰하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 책 속의 한 줄

이방사상은 대칭으로 균형을 잡아서 똑바로 선 대리석 기둥과 같았다. 기독교는 주춧대를 건드리면 흔들거리면서도 거기서 파생된 것들이 서로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천년 동안 보좌에 놓여 있었던, 울퉁불퉁하고 거대한 낭만적인 바위와 같았다. (p.227)